

仁川市の 居住地域構造：1970~1980

崔 元 會*

◀目	次▶
1. 序 論	1) 居住地域의 分化
1) 研究問題	2) 等質居住地域의 形成
2) 研究方法	3. 要約 및 結論
2. 仁川市の 居住地域構造	Summary

1. 序 論

(1) 研究問題

우리나라 都市의 居住地域構造는 어떠한 特性을 內包하고 있으며, 空間的으로는 어떠한 樣相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러한 研究問題를 把握하기 위하여 本研究에서는 1970, 1975 및 1980年의 仁川市를 事例地域으로 하여 都市의 居住地域構造를 ‘居住地域의 分化’와 ‘等質居住地域의 形成’이라는 두가지 觀點에서 分析하고자 試圖하였다. 또한, 本 研究에서는 分析過程에서 居住地域構造形成의 過程을 把握하고자 하였다.

(2) 分析方法

仁川市の 居住地域構造를 把握하기 위한 가장 合理的인 方法은 무엇인가? 本 研究에서는 대체로 居住地域의 分化에 대한 分析을 위해서 要因分析(Factor Analysis)의 技法을 利用하였고,

等質居住地域의 形成에 대한 分析을 위해서는 클러스터分析(Cluster Analysis)의 技法을 利用하였다.

要因分析을 위해 우선 1970年과 1975年에는 54個 變數×75個 센서스 洞單位地域間의 資料가 作成되었고, 1980年에는 54個 變數×79個 센서스 洞單位地域間의 資料가 作成되었다. 이어서 各 變數의 歪度(skewness)를 0.5 以下로 내리는 調整作業을 거쳐서¹⁾, Z-Score Matrix로 轉換하여 要因을 抽出한 결과, eigenvalue가 1.0 以上인 要因은 3個年 共히 14個였고, 이들은 各 總變量의 79.7%, 79.6%, 81.3%를 說明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要因을 10個, 8個, 6個로 段階的으로 壓縮하면서 Factor Matrix using Principal Factor with Iterations, Varimax Rotated Matrix, Oblique Rotated Matrix를 各 各 구해서 比較分析한 結果, 3個年 共히 6個의 要因으로 構成된 Varimax Rotated Matrix를 最適의 것으로 選定하였다.²⁾

* 공주사대 지리교육과 조교

1) 이러한 歪度調整作業의 結果, 3個年 共히 0.5 以上の 變數는 ‘아파트居住家口比率’ 하나뿐이었고, -0.5 以下の 變數는 나타나지 않았다.
 2) 要因分析과 關聯된 모든 統計處理作業은 서울大學校 電子計算所의 VAX 11/780 System의 SPSS를 利用하였으며, 處理過程과 結果의 分析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文獻을 주로 參考하였다.
 Norman H. Nie, et al., 1975,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McGraw-Hill, pp. 468-514.
 Andrew L. Comrey, 芝 祐順 譯, 1978, 因子分析入門, 사이언스社.
 Paul Horst, 柏木繁男·芝 祐順·池田 央·柳井晴夫 共譯, *컴퓨터에 의한 因子分析法*, 科學技術出版社.
 R.J. Johnston, 1978, “Residential Area Characteristics: Research Methods for Identifying Urban Sub-areas—Social Area Analysis and Factorial Ecology,” in D.T. Herbert & R.J. Johnston eds., *Social Areas in Cities: Process, Patterns and Problems*, John Wiley & Sons, pp. 175-218.

이러한 要因分析의 結果로 나타난 各 要因의 特性을 規定하기 위하여 要因負荷值(factor loadings), 共通度(communality), 固有值(eigenvalue), 變量(percent of variance), 累積變量(cumulative percent of variance) 등이 把握되었다. 여기서 要因負荷值는 ± 0.400 以上の 範圍에 속하는 것만을 分析對象으로 삼았다.

또한 主要要因들의 空間패턴을 認知하기 위하여 센서스洞單位別로 要因點數(factor scores)를 地圖化하였다. 本來 各 調査單位地域의 要因點數는 各 要因에 負荷된 負荷值만큼의 比率에 따라 決定되므로 가장 높은 負荷值가 比例적으로 높은 要因點數를 算出하는데 중요한 役割을 한다.³⁾ 이때 正要因負荷值(positive factor loadings)는 負荷值만큼 正比例해서 正要因點數(positive factor scores)의 分布에 영향을 미치고, 마찬가지로 負要因負荷值(negative factor loadings)는 負荷值만큼 正比例해서 負要因點數(negative factor scores)의 分布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各 年度의 要因分析에 使用된 54個의 變數들은 大部分이 人口, 家口 및 住宅과 관련되어 있는데⁴⁾, 이들중 分析變數 1~10은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이 發行한 「總人口 및 住宅調査報告」에서 算出하였고, 分析變數 11은 韓國鑑定院이 發行한 「全國土地時價調査表」에서 算出하였다. 또한, 分析變數 12~54는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이 保有하고 있는 「總人口 및 住宅調査에

관한 컴퓨터파일」을 센서스洞單位別로 再處理하여 算出하였는데, 1970年の 경우엔 10%샘플을 使用했고, 1975年과 1980年엔 各各 5%샘플과 15%샘플을 使用했다.⁵⁾

위와 같은 要因分析의 結果를 土臺로 等質居住地域의 把握을 위한 클러스터分析이 1970, 1975 및 1980年の 센서스洞單位別 要因點數를 利用하여 行해졌는데, 여기에 使用된 方法은 SAS procedures의 CLUSTER 가운데 Ward's Minimum Variance Method이다.⁶⁾

위와 같은 클러스터分析의 過程에서⁷⁾ 「Cubic Clustering Criterion(CCC)과 클러스터數(Number of Clusters: NCL)의 關係」를 나타내는 그림, 「클러스터數에 따른 센서스洞의 區分」을 나타내는 그림, 「클러스터別·要因別 要因點數의 平均值 및 分散值」를 나타내는 表가 各各 作成되었다. 이와 같은 그림과 表는 等質居住地域의 特性과 空間패턴을 把握하기 위한 根據資料가 되는데, 「CCC와 클러스터數의 關係」를 나타내는 그림에 의해서 1970, 1975 및 1980年の 最適의 클러스터數를 各各 7個, 6個 및 5個로 確定하였고⁸⁾ 「클러스터數에 따른 센서스洞의 區分」을 나타내는 그림에 의해서는 確定된 클러스터數에 따라서 各 클러스터에 속하는 센서스洞을 區分하였다. 또한 「各 年度의 클러스터別·要因別 要因點數의 平均值 및 分散值」를 나타내는 表에 의해서 各 클러스터의 特性要因의 內譯이

3) 李琦錫, 1980, “大都市 居住地 分化和 空間패턴에 관한 研究: 서울市를 中心으로,” 李琦錫外, 韓國의 都市와 村落研究, 寶晉齋, p.161.

4) 이러한 變數들의 詳細한 導出內譯은 다음을 參照.

崔元會, 1985, “仁川市의 居住地域分化和 空間패턴에 관한 研究,” 「地理學과 地理教育」, 第15輯, pp.44-71.

5) 이와 관련된 諸般의 컴퓨터處理作業은 서울大學校 電子計算所의 VAX 11/780 System을 使用하였다.

6) SAS Institute Inc., 1982, *SAS USER'S GUIDE: Statistics*, Cary, North Carolina, pp.417-431.

7) Cluster分析을 위한 모든 統計處理作業은 KAIST 시스템공학센터의 IBM-370 Series-3032가 所藏하고 있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利用하였으며, 이 過程에서 다음과 같은 文獻들이 주로 參考되었다. SAS Institute Inc., *op. cit.*, pp.417-431.

J.H. Ward, Jr., 1963, “Hierarchical Grouping to Optimize an Objective Function,” *Jour. Amer. Stat. Asso.*, Vol. 58, pp.236-244.

R.J. Johnston, 1968, “Choice in Classification: The Subjectivity of Objective Methods,” *A.A.A.G.*, Vol. 58, pp.575-589.

R.J. Johnston, 1970, “Grouping and Regionalizing: Some Technical and Methodological Observations,” *Econo. Geogr.*, Vol. 46 (Supplement), pp.293-305.

李景儀, 1985, 『SAS應用技法: 資料處理 및 統計分析』, 大恩出版社.

林知己夫, 1973, “클러스터分析의 意味”, 數理科學, 第17卷, 第4號, イエンス社, pp.5-8.

8) 이에 관련 보다 상세한 內容은 다음을 參照: SAS Institute Inc., *op. cit.*, pp.419-421.

把握되었다. 이 表에서 X個 要因의 平均値(means)들은 X次元 空間에서의 各 클러스터의 重心點의 座標에 相當하는 것으로, 全體 空間에서의 해당 클러스터의 位置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分散值(variance)들은 各 센서스洞單位地區와 中心點의 平均距離를 意味하는 것이고, 分散和(sum of variance)는 해당 클러스터의 同質性의 程度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⁹⁾

2. 仁川市의 居住地域構造

(1) 居住地域의 分化

1920年代에 Chicago社會學者들에 의해서 시작된 西歐 여러 나라의 居住地域分化에 관한 많은 研究들은 오늘날 그 成果가 累積되어, 入力變數, 分析方法 등의 差異點에도 不拘하고, 社會·經濟的地位, 家族的地位, 人種 내지 民族構成 등이 主要한 共通要因으로 나타나고, 地域의 背景, 歷史의 發展段階 등에 따라서 여러가지의 特性要因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要因의 變數構成과 空間패턴의 特性은 Burgess's Model, Hoyt's Model, Ullman's Model, Schnore's Model, Johnston's Model 등으로 集約되어 나타나고 있다.¹⁰⁾

우리나라에서의 지금까지의 研究結果에 의하면, 서울과 仁川은 社會·經濟的地位와 관련된 次元이 第1 要因으로 抽出되었으나, 其他의 都市에서는 下位次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抽出된 要因은 都市化 및 都市經濟에 관련된 變數로 都市膨脹, 都市産業立地, 都市經濟集中 등과 관련된 靑少年人口構造特性이 여러 都市에서 主要 要因으로 抽出되었다. 또한 研究된 모든 都市에서 居住에 관한 要因이 住宅의 構造의 特性과 文化에 의한 階層性을 表示하고 있어 이들 都市의 生態構造에서 居住에 관한 要因과 관련이 깊은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西歐都市에서 主要次元으로 抽出된 家族的地位는 獨立的

次元으로 抽出되기 보다 社會·經濟的 變數와 함께 抽出되어 獨立性이 낮은 것으로 본다.¹¹⁾

1) 居住地域分化要因別 變數構成의 特性

54個의 變數에 대한 要因分析을 行한 結果 各年度 共히 6個씩의 居住地域分化要因들이 추출되었다. 1970年の 경우 社會·經濟的地位(要因Ⅰ), 家族的地位(要因Ⅱ), 都市內 製造業·서비스業 從事人口(要因Ⅲ), 居住移動(要因Ⅳ), 住宅의 種類(要因Ⅴ), 住宅의 外壁材料(要因Ⅵ) 등이 主要要因으로 抽出되었는데, 이들 6個 要因은 總變數의 59.1%를 설명하고 있고, 社會·經濟的地位要因이 24.5%로 가장 높은 變數를 나타내고 있다. 1975年の 경우는 社會·經濟的地位(要因Ⅰ), 都市內 製造業·서비스業 從事人口(要因Ⅱ), 家口의 占有狀態(要因Ⅲ), 家族的地位(要因Ⅳ), 住宅의 年輪(要因Ⅴ), 世帶規模(要因Ⅵ) 등이 主要要因으로 抽出되었는데, 이들 6個 要因은 總變數의 58.9%를 설명하고 있고, 1970年과 마찬가지로 社會·經濟的地位要因이 19.1%로 가장 높은 變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1980年の 경우는 社會·經濟的地位(要因Ⅰ), 都市內 製造業·서비스業 從事人口(要因Ⅱ), 居住移動(要因Ⅲ), 地域的 年輪(要因Ⅳ), 世帶規模(要因Ⅴ), 家口의 占有狀態(要因Ⅵ) 등이 主要 要因으로 抽出되었고, 이들 6個 要因은 總變數의 59.6%를 설명하고 있고, 1970 및 1975年과 마찬가지로 社會·經濟的地位要因이 18.6%로 가장 높은 變數를 나타내고 있다(表 1, 2, 3 參照).

이러한 年度別 居住地域分化要因의 變數構成上의 特性을 全體的으로 살펴보면, 우선 變數를 基準으로 볼 때, 仁川市의 居住地域分化는 社會·經濟的地位, 都市內 製造業·서비스業 從事人口, 家族的地位 등이 上位水準의 要因을 形成하고 있고, 居住移動, 家口의 占有狀態, 地域的 年輪 등이 中位水準의 要因을 形成하고 있다. 그리고, 住宅의 種類, 住宅의 外壁材料, 住

9) 市南文一, 1978, “社會·經濟的 地域特性と地區間通勤人口流動とからみた名古屋大都市圏の地域構造”, 「地理學評論」, Vol. 51, No. 7, pp. 552-553.

10) R.J. Johnston, 1976, “Towards a General Model of Intra-Urban Residential Patterns: Some Cross-cultural Observations,” in *Progress in Geography*, Vol. 4, pp. 83-124.

11) 李淑姬, 1987, 서울市 居住地 空間分化에 관한 研究, 梨花地理叢書 2, 梨花女子大學校大學院, pp. 46-48.

表 1. 共通要因의 負荷量(1970)

要 因	變 數	負 荷 量	
要因 I	電話所有家口比率	0.914	
	T V 所有家口比率	0.880	
	電氣冷蔵庫所有家口比率	0.850	
	住宅地地價	0.846	
	電氣洗濯機所有家口比率	0.772	
	적벽돌住宅比率	0.764	
	在學人口比率	0.763	
	피아노·오르간所有家口比率	0.732	
	人口密度	0.706	
	離婚人口比率	0.645	
	雇傭主人口比率	0.628	
	大卒以上學歷人口比率	0.608	
	外國人人口比率	0.499	
	煉炭使用家口比率	0.477	
	油類使用家口比率	0.429	
	4年前 建築된 住宅比率	0.407	
新聞講讀家口比率	-0.879		
林產燃料使用家口比率	-0.520		
흙벽돌住宅比率	-0.485		
E : 13.225 V : 24.5			
要因 II	有配偶人口比率	0.778	
	14歲以下人口比率	0.680	
	性比	0.640	
	15~19歲性比率	0.606	
	家事人口比率	0.517	
	15~24歲人口比率	-0.834	
	未婚人口比率	-0.760	
	平均家口員數	-0.627	
	生業從事人口比率	-0.569	
	5年前居住지가 仁川市가 아닌 人口比率	-0.422	
	E : 5.757 V : 10.7		
要因 III	自營主人口比率	0.747	
	無給家族從事人口比率	0.702	
	65歲以上人口比率	0.622	
	死別人口比率	0.588	
	20~24歲性比率	0.545	
	3世帶家口比率	0.511	
	林產燃料使用家口比率	0.426	
	賃金·俸給勤勞人口比率	-0.862	
	E : 4.891 V : 9.1		
	5年前居住지가 仁川市가 아닌 人口比率	0.795	
1年前 建築된 住宅比率	0.565		

要 因	變 數	負 荷 量
要因 IV	2年前 建築된 住宅比率	0.538
	시멘트住宅比率	0.445
	5年前居住지가 仁川市인 人口比率	-0.816
	自家居住家口比率	-0.569
	家事人口比率	-0.418
E : 3.383 V : 6.3		
要因 V	聯立住宅家口比率	0.686
	2世帶家口比率	0.640
	單獨住宅家口比率	-0.682
	3世帶家口比率	-0.410
E : 2.643 V : 4.9		
要因 VI	中位年齡	0.469
	흙벽돌住宅比率	0.469
	나무住宅家口比率	-0.475
E : 2.025 V : 3.7		

*E : Eigenvalue, V : Variance(%)

表 2. 共通要因의 負荷量(1975)

要 因	變 數	負 荷 量
要因 I	電話所有家口比率	0.882
	電氣冷蔵庫所有家口比率	0.868
	住宅地地價	0.821
	電氣洗濯機所有家口比率	0.806
	피아노·오르간所有家口比率	0.781
	大卒以上學歷人口比率	0.716
	外國人人口比率	0.603
	在學人口比率	0.585
	雇傭主人口比率	0.559
	人口密度	0.546
	油類使用家口比率	0.542
	T V 所有家口比率	0.526
	적벽돌住宅比率	0.421
	離婚人口比率	0.409
林產燃料使用家口比率	-0.483	
14歲以下人口比率	-0.446	
E : 10.321 V : 19.1		
要因 II	65歲以上人口比率	0.789
	自營主人口比率	0.745
	20~24歲性比率	0.696
	15~19歲性比率	0.659
	性比	0.586
無給家族從事人口比率	0.570	

表 3. 共通要因의 負荷量(1980)

要 因	變 數	負 荷 量	要 因	變 數	負 荷 量
要因Ⅱ	死別人口比率	0.553	要因Ⅰ	피아노·오르간所有家口比率	0.848
	雇傭主人口比率	0.492		大卒以上學歷人口比率	0.826
	5年前居住地가 仁川市인 人口比率	0.459		電氣冷蔵庫所有家口比率	0.810
	中位年齡	0.452		電氣洗濯機所有家口比率	0.793
	賃金·俸給勤勞人口比率	-0.839		新聞講讀家口比率	0.711
	1世帶家口比率	-0.513		電話所有家口比率	0.710
	15~24歲人口比率	-0.462		油類使用家口比率	0.704
	未婚人口比率	-0.454		雇傭主人口比率	0.686
	5年前居住地가 仁川市가 아닌 人口比率	-0.441		中位年齡	0.560
	E : 8.799 V : 16.3			5年前居住地가 仁川市인 人口比率	0.541
要因Ⅲ	3世帶家口比率	0.681	5年前居住地가 仁川市가 아닌 人口比率	0.541	
	5年前居住地가 仁川市인 人口比率	0.672	住宅地地價	0.537	
	無學學歷人口比率	0.584	外國人人口比率	0.471	
	單獨住宅居住家口比率	0.575	平均家口員數	-0.556	
	自家居住家口比率	0.533	흙벽돌住宅比率	-0.458	
	失業人口比率	0.523	E : 10.030 V : 18.6		
	在學人口比率	0.497	要因Ⅱ	65歲以下人口比率	0.846
	家事人口比率	0.481		20~24歲性比率	0.823
	無給家族從事人口比率	0.479		3世帶家口比率	0.714
	死別人口比率	0.424		性比	0.658
傳貰·月賃居住家口比率	-0.608	自營主人口比率		0.714	
E : 4.232 V : 7.8		死別人口比率		0.605	
要因Ⅳ	未婚人口比率	0.612		無給家族從事人口比率	0.508
	15~24歲人口比率	0.595		15~19歲性比率	0.493
	生業從事人口比率	0.586		中位年齡	0.436
	油類使用家口比率	0.504		自家居住家口比率	0.431
	平均家口員數	0.445	林產燃料使用家口比率	0.428	
	煉炭使用家口比率	-0.669	賃金·俸給勤勞人口比率	-0.694	
	有配偶人口比率	-0.629	傳貰·月賃居住家口比率	-0.521	
	14歲以下人口比率	-0.616	聯立住宅居住家口比率	-0.520	
	E : 3.277 V : 6.1		1世帶家口比率	-0.428	
要因Ⅴ	2年前 建築된 住宅比率	0.684	아파트居住家口比率	-0.404	
	1年前 建築된 住宅比率	0.609	E : 7.488 V : 13.9		
	4年前 建築된 住宅比率	0.585	要因Ⅲ	벽돌住宅比率	0.775
	3年前 建築된 住宅比率	0.555		2年前 建築된 住宅比率	0.618
	14歲以下人口比率	0.403		3年前 建築된 住宅比率	0.592
E : 2.948 V : 5.5		4年前 建築된 住宅比率		0.569	
要因Ⅵ	2世帶家口比率	0.811		1年前 建築된 住宅比率	0.547
	新聞講讀家口比率	0.447	無學學歷人口比率	0.522	
	性比	0.417	5年前居住가 仁川市가 아닌 人口比率	0.519	
	4世帶以上家口比率	-0.657	14歲以下人口比率	0.449	
E : 2.237 V : 4.1		5年前居住地가 仁川市인 人口比率	-0.519		

*E : Eigenvalue, V : Variance(%)

要因	變數	負荷量
	나무住宅比率	-0.465
	E : 5.163 V : 9.6	
要因Ⅳ	人口密度	0.682
	未婚人口比率	0.675
	有配偶人口比率	0.671
	在學人口比率	0.617
	住宅地地價	0.598
	單獨住宅居住家口比率	0.585
	林産燃料使用家口比率	-0.483
	E : 3.836 V : 7.1	
要因Ⅴ	2世帶家口比率	0.785
	14歲以下人口比率	0.658
	失業人口比率	0.449
	4世帶以上家口比率	-0.745
	1世帶家口比率	-0.597
	生業從事人口比率	-0.585
	15~24歲人口比率	-0.558
	無學學歷人口比率	-0.466
	E : 3.029 V : 5.6	
要因Ⅵ	自家居住家口比率	0.777
	煤炭使用家口比率	0.652
	TV所有家口比率	0.602
	傳賃·月賃居住家口比率	0.424
	家事人口比率	-0.427
	시멘트住宅比率	-0.425
	E : 2.629 V : 4.9	

*E : Eigenvalue, V : Variance(%)

宅의 建築時期, 世帶規模, 家口의 占有狀態 등의 要因이 下位水準의 要因을 形成하고 있다¹²⁾ (表 1, 3, 5 參照).

한편 要因의 出現回數를 基準으로 볼 때, 社會·經濟的 地位와 都市內 製造業·서비스業 從事人口의 2個 要因이 3個年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고, 家族的 地位, 居住移動, 世帶規模, 家口의 占有狀態 등 4個 要因이 2個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住宅의 種類, 住宅의 外壁材料, 住宅의 建築時期, 地域的 年輪 등 4個의 要因이 1個年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2) 居住地域分化要因別 空間패턴의 特性

여기에서는 이 期間에 抽出된 여러 要因들 중에서 變量과 出現回數를 基準으로 삼아 社會·經濟的 地位, 都市內 製造業·서비스業 從事人口, 家族的 地位, 居住移動, 世帶規模, 家口의 占有形態 등의 要因들이 相對的 位階性이 높은 것으로 看做하고, 該當要因의 空間패턴의 特性變化에 대해서 考察하였다(그림 1, 2 및 3 參照).

① 社會·經濟的 地位 要因

社會·經濟的 地位 要因은 3個年 모두에서 나타나면서 가장 높은 變量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 要因이 仁川市의 居住地域分化를 主導하고 있는 것으로 看做할 수 있는데 이 要因의 變數構成과 空間패턴의 變化를 살펴보면, 社會·經濟的 上層人口의 경우, 1970년에는 中區·東區·南區의 都心連接地域과 北區 富平洞 一帶의 副都心地域에 分離하여 位置하고 있고, 1975년에는 社會·經濟的 上層人口의 두 中心地域을 連結하는 京仁線 電鐵을 主軸으로 社會·經濟的 上層人口地域이 擴大되어 있고, 水仁線의 松島驛 方面으로 擴大되어 가고 있다. 1980년에는 1975년과 대체로 類似한 樣相을 띠고 있으나, 間石洞 一帶에서 더욱 擴大되는 樣相을 띠고 있다. 부연하면, 社會·經濟的 上層人口地域은 1970년대 初半에는 都市內部 中心性的 影響圈과 그 空間的 範圍를 같이 하였으나, 1970년대 中半을 지나 後半에 이르면서 새로운 交通手段의 普及와 交通體系의 改善 등으로 인해서 中心性的 影響圈이 擴大되면서 同時에 擴大된 것이고, 이 過程에서 社會·經濟的 上層人口地域은 대체로 連續적으로 발달하였으나 一部地域에서는 飛地的으로 발달하기도 했다.

또한 社會·經濟的 下層人口의 空間패턴을 살펴보면, 1970년에는 南區의 京仁線 連接地域과 北區의 富平洞 一帶를 제외한 大部分의 地域이 社會·經濟的 下層人口地域으로 나타나고 있고, 1975년에는 京仁線 緣邊의 間石洞 一帶가 社會·經濟的 上層人口地域으로 潛蝕되고, 京仁線 北

12) 여기서 上位水準의 要因이란 變量이 10.7~24.5%에 해당하는 경우를 指稱하는 것이고, 中位水準의 要因과 下位水準의 要因이란 變量이 各各 6.1~9.6%와 3.7~5.6%에 해당하는 경우를 指稱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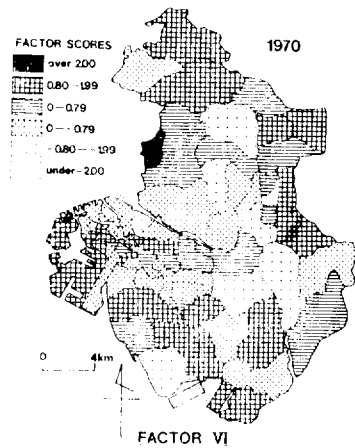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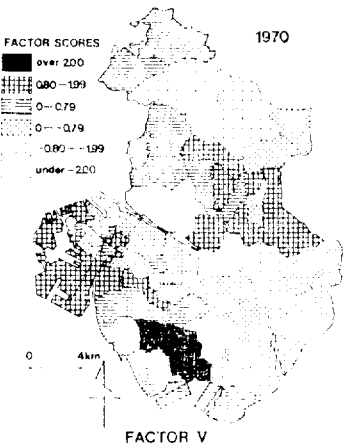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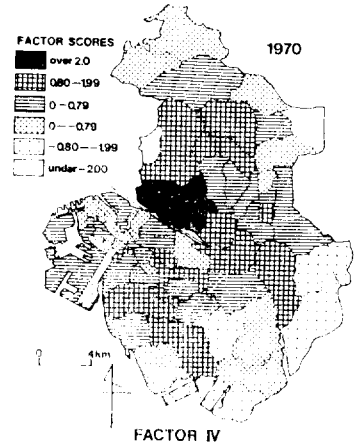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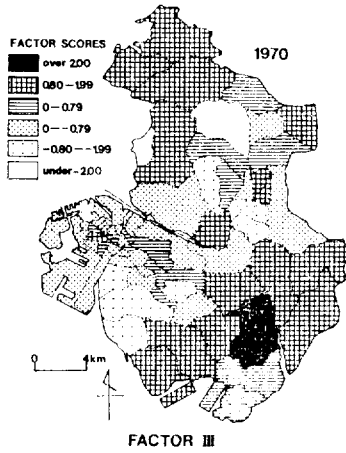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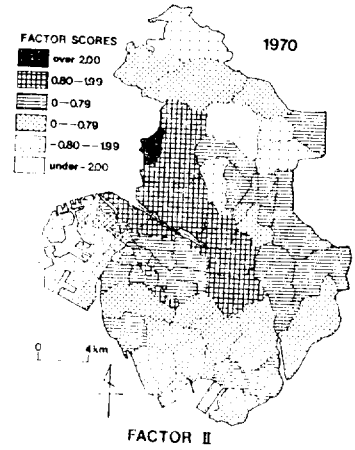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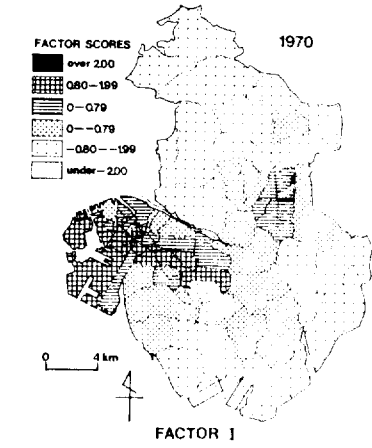


그림 1. 居住地域分化要因의 空間패턴(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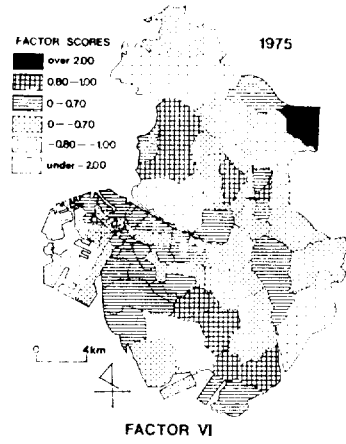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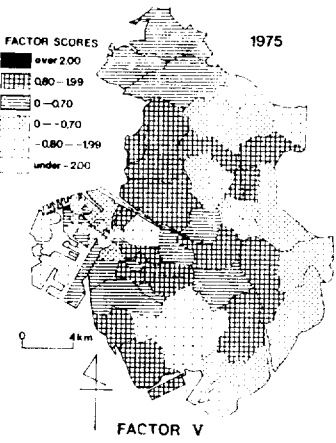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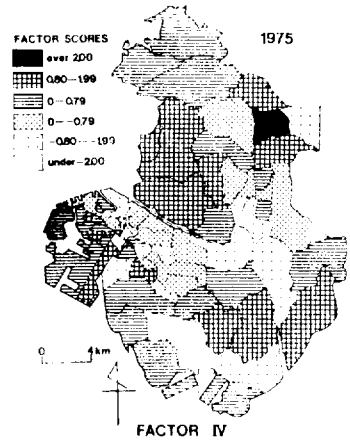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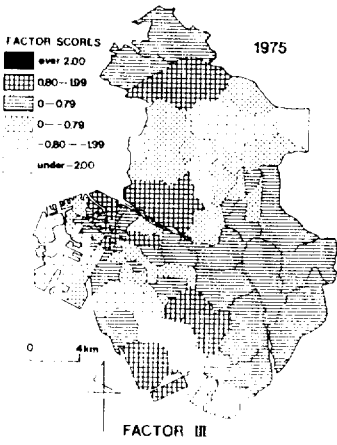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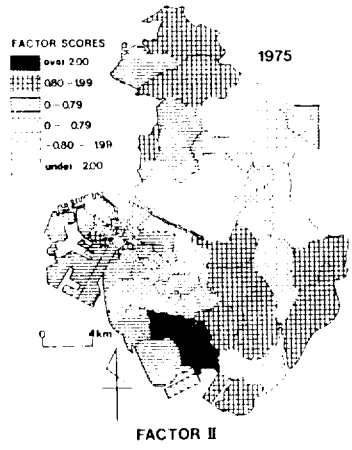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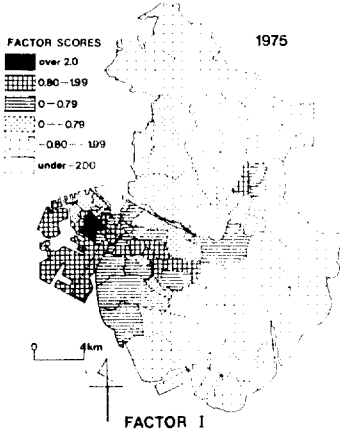


그림 2. 居住地域分化要因의 空間패턴(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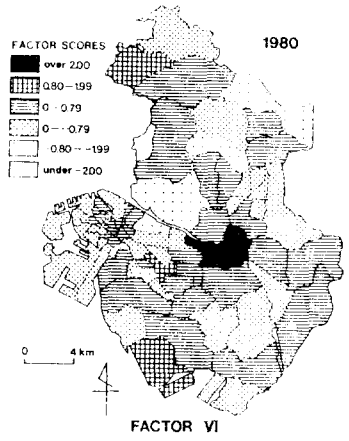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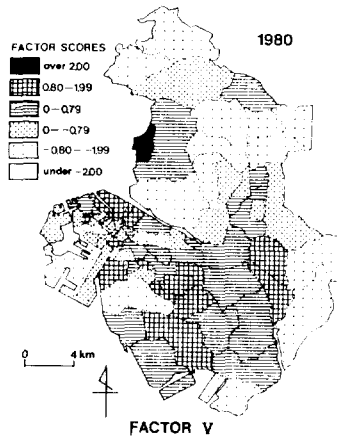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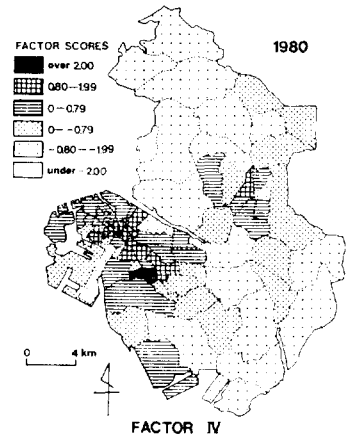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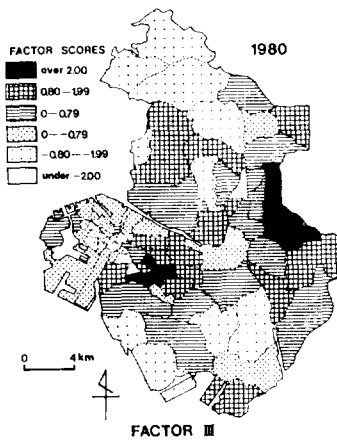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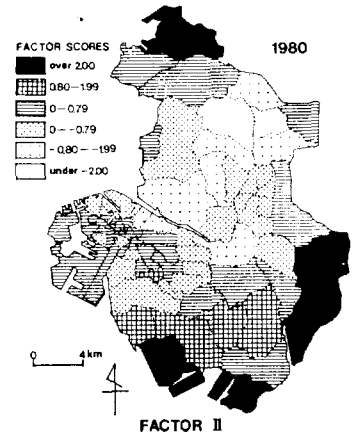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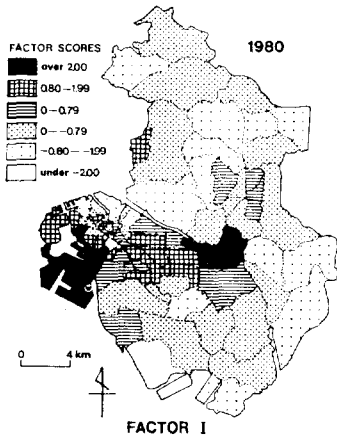


그림 3. 居住地域分化要因의 空間패턴(1980)

部와 그 南部地域에서 中位와 下位地域이 자리 바꿈을 하고 있다. 1980년에는 全體的으로는 1975년에 비해 큰 變化가 없으나, 中位와 下位の 자리바꿈이 행해지고 있다.

② 都市內 製造業·서비스業從事人口 要因의 變化

仁川市の 居住地域分化過程에 있어서 都市內 製造業·서비스業 從事人口의 要因은 3個年에서 共通의로 나타나고 있는데, 1970년에는 要因Ⅲ, 1975년과 1980년에는 要因Ⅱ로 各各 나타나고 있다. 이 要因들의 變數構成은 各 年度마다 약간씩의 差異를 나타내고 있으나, 대체로 正要因負荷值는 自營主·僱傭主·無給家族從事人口를, 負要因負荷值는 賃金·俸給勤勞人口를 各各 나타내고 있다. 이 要因들의 變數構成은 1970년보다는 1975년이, 1975년보다는 1980년이 보다 細分되고 具體的인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즉, 正·負要因點數分布地域別로 該當地域에 居住하는 住民의 特性이 보다 明確해지고 있다.

한편 都市內 製造業·서비스業從人口의 空間패턴의 變化樣相을 살펴보면 自營主·僱傭主·無給家族從事人口의 特性을 나타내는 正要因點數分布地域은 全體的으로는 北區地域으로의 縮少, 南區地域에서의 現狀維持, 中區地域에서의 擴大 등으로 나타나고, 그 중 上位地域은 1970년과 1975년에는 南區의 外廓地域에, 1980년에는 南區와 北區의 廣範圍한 外廓에 各各 나타나고 있다. 또한, 賃金·俸給勤勞人口의 特性을 나타내는 負要因點數分布地域은 全體的으로는 北區地域에서의 擴大, 南區地域에서의 現狀維持, 中區地域에서의 縮少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서 上位地域은 3個年 共히 北區地域에서만 나타나고 있는데, 1970년에 가장 넓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3個年 모두 北區와 南區의 工業團地周邊의 廣範圍한 地域에 形成되어 있는 自營主·僱傭主·無給家族從事人口의 居住地域은 本來는 住民의 大部分이 農業活動에 從事하는 純粹農業地域이었으나, 都市化·産業化에 의한 農業의 相對的 斜陽化로 都市內部的 製造業·서비스業에 從事하는 住民이 많은 곳으로서, urban fringe area로 변한 곳이다. 이러한 特性이 나타나는

곳 중에서도 上位의 正要因點數分布地域들은 景觀上으로는 社會的 休耕地가 많은 農村景觀을 維持하고 있고, 機能上으로는 主로 都市內부로 通勤하는 住民들의 夜間居住地로서의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

③ 家族的 地位 要因의 變化

家族的 地位 要因은 1970년엔 要因Ⅱ로 나타나고, 1975년엔 要因Ⅳ로 나타나고 있어서 1970年代 前半部의 仁川市 居住地域分化의 主要要因임을 알 수 있는데, 이의 變數構成과 空間패턴의 變化에 대해서 살펴보면, 1970년과 1975년은 變數構成에 있어선 대체로 類似한 反面, 空間패턴의 變化에 있어선 逆패턴의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즉 1970년의 有配偶人口의 居住地域은 1975년엔 未婚人口의 居住地域으로 변해 있고, 1970년의 未婚人口의 居住地域은 1975년엔 有配偶人口의 居住地域으로 변해 있다.

④ 居住移動 要因의 變化

居住移動 要因은 1970년에는 要因Ⅳ로 나타났으나, 1975년엔 나타나지 않고, 1980년엔 다시 要因Ⅲ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0년과 1980년의 變數構成과 空間패턴의 變化를 살펴보면 變數構成에 있어선 대체로 類似하다. 즉, 最近(5年 以內)에 移住해 온 人口가 居住하는 新興住宅地域은 대체로 都心周邊과 工業團地周邊地域에 해당되고, 오래전부터(5年前에) 居住해 온 人口의 傳統的 住宅地域은 都心·副都心 및 都市周邊部에 形成되어 있다. 특히 新興住宅地域은 傳統的 住宅地域에 의해서 상당히 廣範圍한 地域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서 住民의 居住移動은 住民 自體의 諸般特性과 地域의 特性에 따라서 選擇의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世帶規模 要因의 變化

世帶規模의 要因은 1975년엔 要因Ⅵ로 나타나고 있고, 1980년에는 要因Ⅴ로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의 變數構成과 空間패턴의 變化를 살펴보면, 變數構成에 있어서는 正要因의 特性은 中世帶家口로 同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負要因의 特性은 1980년엔 1975년의 大世帶家口의 特性에 小世帶家口의 特性이 混合되어 나타나고

있다.¹³⁾ 空間패턴에 있어서는 1975년에는 正・負要因點數分布地域이 모두 分散의 度가 큰 無定形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980년에는 南區地域의 正・負要因點數分布地域들이 統合되어 전체적으로는 分散의 度가 낮아지고 있다.

⑥ 家口の 占有狀態 要因의 變化

家口の 占有狀態를 나타내는 要因은 1975年和 1980년에 연속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各年度에 있어서는 현저한 差異가 있다. 즉 1975年엔 自家居住家口가 正要因點數分布地域에 나타나고, 傳貰・月貰居住家口가 負要因點數分布地域에 나타나고 있는 反面에 1980年엔 自家, 傳貰 및 月貰居住家口가 混在된 狀態로 正要因點數分布地域에서 나타나고 있다.

(2) 等質居住地域의 形成

앞에서 1970, 1975 및 1980年の 仁川市 居住地域의 分化를 유발한 要因들을 抽出하였고, 그들의 個別的 및 綜合的 考察을 行하였다. 여기에서는 居住地域의 分化要因을 各年度別로 클러스터分析에 의해서 統合했을 때 나타나는 等質居住地域의 構成特性과 空間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表 4, 5, 6 및 그림 4, 5 參照). 이와 같이 要因分析의 結果를 利用하여 클러스터分析을 행하므로써 等質居住地域을 把握한 研究들은 우리나라에선 아직 행해진 바 없고, 일부에서 새로이 試圖되고 있다.¹⁴⁾

1) 1970年の 클러스터別 要因構成과 空間패턴의 特性

① 클러스터-A의 要因構成과 空間패턴의 特性
클러스터-A는 全體 센서스洞의 30.6%(75個洞中 23個洞)를 차지하는 가장 큰 클러스터이다. 이 클러스터-A에는 要因Ⅰ의 正要因點數平

均值(means of positive factor scores)가 가장 탁월하게 나타나는데¹⁵⁾, 本來 要因Ⅰ의 正要因點數는 ‘社會・經濟的 上層人口’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클러스터-A는 社會・經濟的 上層人口의 居住地域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社會・經濟的 上層人口가 都市內의 都心과 副都心に 分布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前近代의 都市構造가 維持되고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 이는 都市構造가 아직 未分化狀態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社會・經濟的 上層人口가 都心과 副都心に 居住하고 있는 都市가 아직은 職住가 分離될 수 있는 與件(例를 들면, 交通網의 開設이나 交通手段의 改善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② 클러스터-B의 要因構成과 空間패턴의 特性

클러스터-B는 全體 센서스洞의 21.3%(75個洞中 16個洞)를 차지하는 두번째로 큰 클러스터이다. 이 클러스터-B에는 要因Ⅴ와 要因Ⅵ의 負要因點數平均值(means of negative factor scores) 및 要因Ⅱ의 正要因點數平均值가 卓越하게 나타나고 있다. 本來, 要因Ⅴ의 負要因點數는 ‘中世帶家口가 居住하는 單獨住宅’을, 要因Ⅱ의 正要因點數는 ‘男性少年人口를 가진 有配偶人口’를, 要因Ⅵ의 負要因點數는 ‘低級住宅材料’를 各各 나타내므로, 클러스터-B는 全體적으로는 ‘男性少年人口를 가진 有配偶의 中世帶家口가 居住하는 單獨住宅地域’이라고 할 수 있다.

③ 클러스터-C의 要因構成과 空間패턴의 特性

클러스터-C는 全體 센서스洞의 20.0%(75個洞中 15個洞)를 차지하는 세번째로 큰 클러스터인데, 이 클러스터-C에는 要因Ⅴ의 正要因點數平均值와 要因Ⅲ의 負要因點數平均值가 卓越하게 나타나고 있다. 本來, 要因Ⅴ의 正要因點數는

13) 本稿에서는 1世帶를 小世帶, 2~3世帶를 中世帶로, 그리고 4世帶以上을 大世帶로 區分하였다.

14) 이러한 研究들 중 몇가지 例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Andrew Godwin Onokerhoraye, 1977, "The Spatial Pattern of Residential Districts in Benin, Nigeria," *Urban Studies*, Vol. 14, pp. 291-302.

Ken'ichi UENO, 1985, "The Residential Structure of Tokyo during the Pre-World War II Period of Showa (1930)," *Sci. Rept., Inst. Geosci., Univ. of Tsukuba*, Sect. A, Vol. 6, pp. 1-28.

Ken'ichi UENO, 1985, "The Residential Structure of Tokyo in 1910s (The Taisho Era)," *Geographical Review of Japan*, Vol. 58, Ser. B, No. 1, pp. 24-48.

上野健一, 1981, "大正中期における舊東京市の居住地域構造: 居住人口의 社會經濟的 特性に關する 因子生態學研究", 「人文地理」, 第33卷, 第5號, pp. 1-20.

15) 各 클러스터의 特性把握을 위한 要因點數平均值的 選定은 그 絕對值가 0.6000 以上인 것에 限定하였다.

表 4. 클러스터別·要因別 要因點數의 平均値 및 分散値(1970)

클러스터	要 因	I						構成洞數
		I	II	III	IV	V	VI	
A	平均値	0.9773	-0.3192	-0.0208	-0.3057	0.1872	0.3963	23
	分散値	0.2591	0.3663	0.2667	0.4000	0.7472	0.4816	
B	平均値	0.3451	0.6843	0.0762	0.5332	-0.9948	-0.6663	16
	分散値	0.8336	0.1856	0.4908	0.4978	0.7985	0.5843	
C	平均値	-0.2824	0.1499	-0.7623	0.2399	1.0662	-0.4070	15
	分散値	0.2403	0.4428	0.4450	0.6586	0.5848	0.8907	
D	平均値	-0.9892	0.5014	1.0159	1.4790	1.1500	0.4263	4
	分散値	0.2049	0.7514	0.0789	0.1879	0.5319	0.6105	
E	平均値	-1.5721	3.2093	-4.0948	-3.5799	-0.2940	2.8016	1
	分散値	
F	平均値	-1.0904	-0.3992	0.9045	-0.5675	-0.5023	0.3010	15
	分散値	0.1369	0.2231	0.6548	0.9039	0.6343	0.8807	
G	平均値	-1.8792	-5.0829	-2.8422	1.0785	-1.1545	-1.3716	1
	分散値	

‘聯立住宅에 居住하는 中世帶家口’를 나타내고, 要因Ⅲ의 負要因點數는 ‘賃金·俸給勤勞人口’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클러스터-C는 全體的으로는 ‘賃金·俸給勤勞人口로 構成된 中世帶家口가 居住하는 聯立住宅地域’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클러스터-D의 要因構成과 空間패턴의 特性
클러스터-D는 全體 센서스洞의 5.3%(75個洞中 4個洞)를 차지하는 다섯번째의 클러스터인데, 이 클러스터-D에는 要因Ⅳ, 要因Ⅴ 및 要因Ⅲ의 正要因點數負荷値와 要因Ⅰ의 負要因點數平均値가 卓越하게 나타난다. 本來, 要因Ⅳ의 正要因點數는 ‘5年前 居住地가 仁川市가 아닌 人口가 居住하는 最近(1~2年前)에 建築된 시멘트住宅’을, 要因Ⅲ의 正要因點數는 ‘自營主·無給家族從事人口’를, 要因Ⅰ의 負要因點數는 ‘社會·經濟的 下層人口’를 各各 나타내므로, 클러스터-D는 全體的으로는 ‘5年前 居住地가 仁川市가 아닌 自營主·無給家族從事人口로 構成된 中世帶家口가 居住하는 最近(1~2年前)에 建築된 시멘트聯立住宅地域’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클러스터-E의 要因構成과 空間패턴의 特性
클러스터-E에는 클러스터-G와 마찬가지로 1個의 洞만이 속해 있는데, 北區의 元倉洞이 그곳이나(그림 5 및 8 參照). 클러스터-E에는 要因

Ⅱ와 要因Ⅵ의 正要因點數平均値와 要因Ⅰ, 要因Ⅲ 및 要因Ⅳ의 負要因點數負荷値가 卓越하게 나타난다. 本來, 要因Ⅱ의 正要因點數는 ‘男性少年人口를 가진 有配偶人口’를, 要因Ⅵ의 正要因點數는 ‘흙벽돌住宅’을, 要因Ⅰ의 負要因點數는 ‘社會·經濟的 下層人口’를 要因Ⅲ의 負要因點數는 ‘賃金·俸給勤勞人口’를, 要因Ⅳ의 負要因點數는 ‘5年前 居住地가 仁川市인 人口’를 各各 나타내므로 클러스터-E는 全體的으로는 ‘5年前 居住地가 仁川市인 賃金·俸給勤勞人口가 主를 이루는 有配偶人口의 흙벽돌住宅地域’이라고 할 수 있다.

⑥ 클러스터-F의 要因構成과 空間패턴의 特性
클러스터-F는 全體센서스洞의 20.0%(75個洞中 15個洞)를 차지하는 세번째의 클러스터인데, 여기에는 要因Ⅰ의 負要因點數平均値와 要因Ⅲ의 正要因點數平均値가 卓越하게 나타난다. 本來, 要因Ⅰ의 負要因點數는 ‘社會·經濟的 下層人口’를, 要因Ⅲ의 正要因點數는 ‘自營主·無給家族從事人口’를 各各 나타내고 있어서, 클러스터-F는 全體的으로는 ‘自營主·無給家族從事人口가 主를 이루는 社會·經濟的 下層人口地域’이라고 할 수 있다.

⑦ 클러스터-G의 要因構成과 空間패턴의 特性

클러스터-G에는 클러스터-E와 마찬가지로 1개의 洞만이 속해 있는데, 北區의 曉星洞이 그곳이다(그림 5 및 8 參照). 이 클러스터-G에는 要因Ⅳ의 正要因點數平均值와 要因Ⅰ, 要因Ⅱ, 要因Ⅲ, 要因Ⅴ 및 要因Ⅵ의 負要因點數平均值가 卓越하게 나타난다. 本來, 要因Ⅳ의 正要因點數는 '5年前 居住地가 仁川市가 아닌 人口'를, 要因Ⅰ의 負要因點數는 '社會·經濟的 下層人口'를, 要因Ⅱ의 負要因點數는 '青少年年齡層의 未婚人口'를, 要因Ⅲ의 負要因點數는 '賃金·俸給勤勞人口'를, 要因Ⅴ의 負要因點數는 '中世帶家口가 居住하는 單獨住宅'을, 要因Ⅵ의 負要因點數는 '低級住宅材料를 各各 나타내므로, 클러스터-G는 全體的으로는 '5年前 居住地가 仁川市가 아닌 未婚青少年層의 賃金·俸給勤勞人口로 構成된 中世帶規模의 나무材料單獨住宅地域'이라고 할 수 있다.

2) 1975年의 클러스터別 要因構成과 空間패턴의 特性

① 클러스터-H의 要因構成과 空間패턴의 特性
클러스터-H는 全體 센서스洞의 17.3%(75個洞中 13個洞)를 차지하는 두번째 規模의 클러스터인데, 여기에는 要因Ⅰ과 要因Ⅳ의 正要因點數平均值가 卓越하게 나타난다. 本來, 要因Ⅰ의 正要因點數는 '社會·經濟的 上層人口'를, 要因Ⅳ의 正要因點數는 '青年年齡層의 未婚人口'를

各各 나타내는 것이므로, 클러스터-H는 全體的으로는 '青年年齡層의 未婚人口가 많은 社會·經濟的 上層人口地域'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클러스터-I의 要因構成과 空間패턴의 特性
클러스터-I는 全體 센서스洞의 16.3%(75個洞中 12個)를 차지하는 세번째의 클러스터인데, 이 클러스터에는 要因Ⅲ의 正要因點數平均值와 要因Ⅳ의 負要因點數平均值가 卓越하게 나타나고 있다. 本來, 要因Ⅲ의 正要因點數는 '自家居住家口'를, 要因Ⅳ의 負要因點數는 '幼少年層(14歲以下)의 子女를 가진 有配偶人口'를 各各 나타내고 있어서, 클러스터-I는 全體的으로는 '幼少年層의 子女를 가진 有配偶人口가 居住하는 自家居住家口地域'이라고 할 수 있다.

③ 클러스터-J의 要因構成과 空間패턴의 特性
클러스터-J는 全體 센서스洞의 36.0%(75個洞中 27個洞)를 차지하는 첫번째 規模의 클러스터인데, 여기에는 要因Ⅴ의 正要因點數平均值만이 卓越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서 클러스터-J는 要因Ⅴ의 正要因點數의 本來의 特性에 의거하여 '最近(1~4年前)에 建築된 新興住宅地域'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클러스터-K의 要因構成과 空間패턴의 特性
클러스터-K에는 75個의 全體 센서스洞 가운데 南區의 延奉·靑鷄洞만이 유일하게 속해 있는 가장 規模가 작은 클러스터인데, 여기에는 要因Ⅱ

表 5. 클러스터別·要因別 要因點數의 平均值 및 分散值(1975)

클러스터		要 因	I	II	III	IV	V	VI	構成洞數
H	平均值		1.4745	0.5531	-0.1278	0.7261	-0.3887	-0.1016	13
	分散值		0.2864	0.2977	0.5334	0.2414	0.3395	0.4353	
I	平均值		-0.0634	-0.5066	0.6370	-0.9102	-1.1760	-0.0044	12
	分散值		0.4216	0.4295	0.2898	0.1892	0.2988	0.4873	
J	平均值		0.1019	-0.0488	-0.1705	-0.5440	0.7017	0.4953	27
	分散值		0.4865	0.3405	0.6517	0.5204	0.6331	0.7945	
K	平均值		-1.1199	2.1997	-4.3525	-2.6414	-1.0060	-3.6823	1
	分散值		
L	平均值		-0.5955	-1.5942	-0.5987	1.0099	0.2445	-0.5738	10
	分散值		0.1670	0.9306	0.5405	0.8526	1.0233	0.6600	
M	平均值		-1.1738	1.1625	0.7467	0.7263	-0.1016	-0.2150	12
	分散值		0.0538	0.4681	0.2874	0.2412	0.5457	0.5776	

의 正要因點數平均值와 要因Ⅰ, 要因Ⅲ, 要因Ⅳ 및 要因Ⅵ의 負要因點數平均值가 卓越하게 나타난다. 本來, 要因Ⅱ의 正要因點數는 ‘自營主·雇傭主·無給家族從事人口’를, 要因Ⅰ의 負要因點數는 ‘社會·經濟的 下層人口’를, 要因Ⅲ의 負要因點數는 ‘傳貰·月貰居住家口’를, 要因Ⅳ의 負要因點數는 ‘幼少年層(14歲以下)의 子女를 가진 有配偶人口’를, 要因Ⅵ의 負要因點數는 ‘大世帶家口’를 各各 나타내므로, 클러스터-K는 全體的으로는 ‘幼少年層의 子女를 가진 有配偶人口가 居住하는 傳貰·月貰의 大世帶家口地域’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클러스터-L의 要因構成과 空間패턴의 特性
클러스터-L은 全體 센서스洞의 13.3%(75個洞中 10個洞)을 차지하는 다섯번째 規模의 클러스터인데, 여기에는 要因Ⅱ의 負要因點數平均值와 要因Ⅳ의 正要因點數平均值가 卓越하게 나타난다. 本來, 要因Ⅱ의 負要因點數는 ‘賃金·俸給勤勞人口’를, 要因Ⅳ의 正要因點數는 ‘青少年年齡層의 未婚人口’를 各各 나타내므로, 클러스터-L은 全體的으로는 ‘未婚·青年年齡層의 賃金·俸給勤勞人口地域’이라고 할 수 있다.

⑥ 클러스터-M의 要因構成과 空間패턴의 特性
클러스터-M은 全體 센서스洞의 16.3%(75個洞中 12個洞)를 차지하는 세번째 規模의 클러스터인데, 여기에는 要因Ⅱ, 要因Ⅲ 및 要因Ⅳ의 正要因點數平均值와 要因Ⅰ의 負要因點數平均值가 卓越하게 나타난다. 本來, 要因Ⅱ의 正要因

點數는 ‘自營主·雇傭主·無給家族從事人口’를, 要因Ⅲ의 正要因點數는 ‘自家居住家口’를 要因Ⅳ의 正要因點數는 ‘青年年齡層의 未婚人口’를 各各 나타내므로, 클러스터-M은 全體的으로는 ‘自營主·雇傭主·無給家族從事人口와 青年年齡層의 未婚人口가 居住하는 自家居住家口地域’이라고 할 수 있다.

3) 1980年의 클러스터別 要因構成과 空間패턴의 特性

① 클러스터-N의 要因構成과 空間패턴의 特性
클러스터-N은 全體 센서스洞의 11.4%(79個洞中 9個洞)를 차지하는 네번째 規模의 클러스터인데, 여기에는 要因Ⅰ의 正要因點數平均值와 要因Ⅲ, 要因Ⅳ 및 要因Ⅵ의 負要因點數平均值가 卓越하게 나타나고 있다. 本來, 要因Ⅰ의 正要因點數는 ‘社會·經濟的 上層人口’를, 要因Ⅲ의 負要因點數는 ‘5年前 居住地가 仁川市인 人口가 居住하는 低級材料住宅’을, 要因Ⅳ의 負要因點數는 ‘都市周邊部の 新興住宅 및 新設學校’를, 要因Ⅵ의 負要因點數는 ‘시멘트住宅에 居住하는 家事人口’를 各各 나타내므로, 클러스터-N은 全體的으로는 ‘5年前 居住地가 仁川市인 社會·經濟的 上層家事人口가 居住하는 都市周邊部の 新興住宅 및 新設學校地域’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클러스터-O의 要因構成과 空間패턴의 特性
클러스터-O는 全體 센서스洞의 30.4%(79個洞中 24個洞)를 차지하는 두번째 規模의 클러스터

表 6. 클러스터別·要因別 要因點數의 平均值와 分散值(1980)

클러스터	要因	I						構成洞數
		I	II	III	IV	V	VI	
N	平均值	1.6796	-0.0127	-0.8919	-0.6330	-0.2692	-0.7940	9
	分散值	0.3112	0.4854	0.3014	1.7941	2.0585	1.5564	
O	平均值	-0.2073	-0.2019	-0.6430	0.8397	0.4055	0.0923	24
	分散值	0.4340	0.2208	0.2158	0.2526	0.5504	0.1228	
P	平均值	-0.0218	-0.3335	0.8214	-0.1063	0.0097	-0.0921	34
	分散值	0.5264	0.8542	0.5018	0.5792	0.8816	0.3368	
Q	平均值	2.1074	-0.9369	-0.0847	-2.8061	0.5261	6.2684	1
	分散值	
R	平均值	-1.0460	1.5671	-0.3984	-0.7468	-0.7425	0.1631	11
	分散值	0.5243	0.8196	1.2295	0.3603	0.8838	0.5857	

인데, 여기에는 要因Ⅳ의 正要因點數平均值와 要因Ⅰ·要因Ⅲ의 負要因點數平均值가 卓越하게 나타난다. 本來, 要因Ⅳ의 正要因點數는 ‘都心部の 傳統的 住宅 및 舊名門學校’를, 要因Ⅰ의 負要因點數는 ‘社會·經濟的 下層人口’를, 要因Ⅲ의 負要因點數는 ‘5年前 居住地가 仁川市인 人口가 居住하는 低級住宅地域’을 各各 나타내므로, 클러스터-O는 全體的으로는 ‘5年前 居住地가 仁川市인 社會·經濟的 下層人口가 居住하는 退落한 舊高級住宅 및 舊名門學校地域’이라고 할 수 있다.

③ 클러스터-P의 要因構成과 空間패턴의 特性
클러스터-P는 全體 센서스洞의 43.1%(79個洞 34個洞)를 차지하는 가장 規模가 큰 클러스터인데, 여기에는 要因Ⅲ의 正要因負荷值만이 卓越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클러스터-P는 ‘最近 移住해 온 人口가 새로운 住宅을 짓고 居住하는 中·上級の 新興住宅地域’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클러스터-Q의 要因構成과 空間패턴의 特性
클러스터-Q에는 全體 센서스洞 가운데 南區의 間石洞만이 속하고 있어서 가장 작은 規模의 클러스터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要因Ⅰ과 要因Ⅵ의 正要因點數 및 要因Ⅱ와 要因Ⅳ의 負要因點數가 卓越하게 나타나고 있다. 本來 要因Ⅰ의 正要因點數는 ‘社會·經濟的 上層人口’를, 要因Ⅵ의 正要因點數는 ‘煙炭을 使用하는 自家 및 傳貰·月貰居住家口’를, 要因Ⅱ의 負要因點數는 賃金·俸給勤勞人口’를, 要因Ⅳ의 負要因點數는 ‘都心周邊部의 新興住宅 및 新設學校’를 各各 나타내는 것이므로, 클러스터-Q는 全體的으로는 ‘煙炭이나 林産燃料를 使用하는 賃金·俸給勤勞人口가 主를 이루는 都心周邊部의 自家 및 傳貰·月貰居住家口地域’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클러스터-R의 要因構成과 空間패턴의 特性
클러스터-R은 全體 센서스洞의 13.9%(79個洞中 11個洞)를 차지하는 세번째 規模의 클러스터인데, 여기에는 要因Ⅱ의 正要因點數平均值와 要因Ⅰ, 要因Ⅳ 및 要因Ⅴ의 負要因點數平均值가 卓越하게 나타나고 있다. 本來, 要因Ⅱ의 正要因點數는 ‘自營主 및 無給家族從事人口’를, 要因Ⅰ의 負要因點數는 ‘社會·經濟的 下層人

口’를, 要因Ⅳ의 負要因點數는 ‘林産燃料使用家口’를, 要因Ⅴ의 負要因點數는 ‘青年年齡層이 주를 이루는 小世帶 또는 大世帶家口’를 나타내므로, 클러스터-R은 全體的으로는 ‘自營主 및 青年年齡層의 無給家族從事人口로 構成된 小世帶 또는 大世帶의 林産燃料使用家口地域’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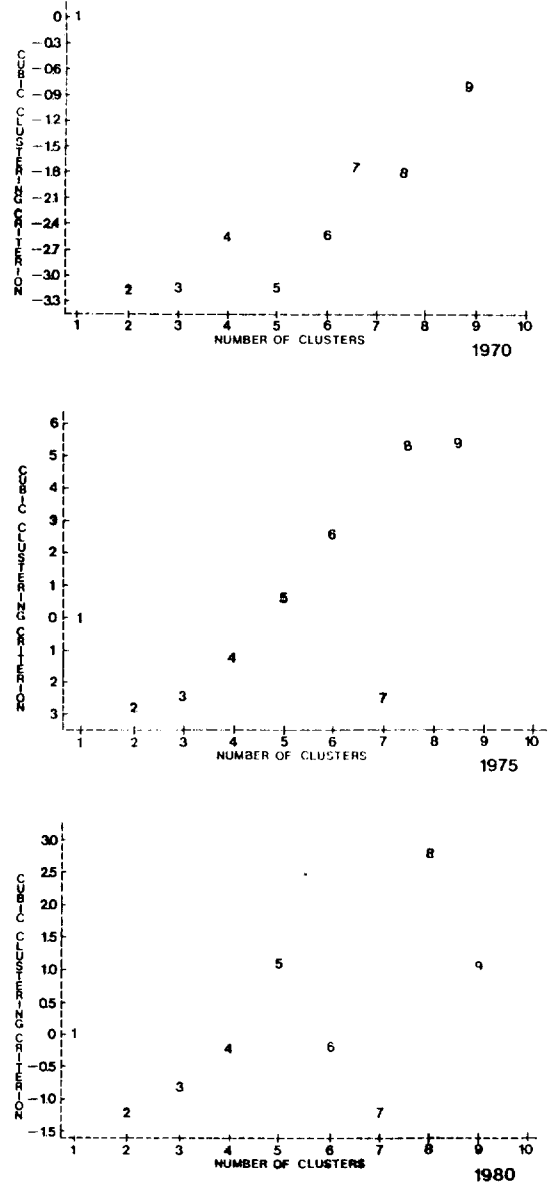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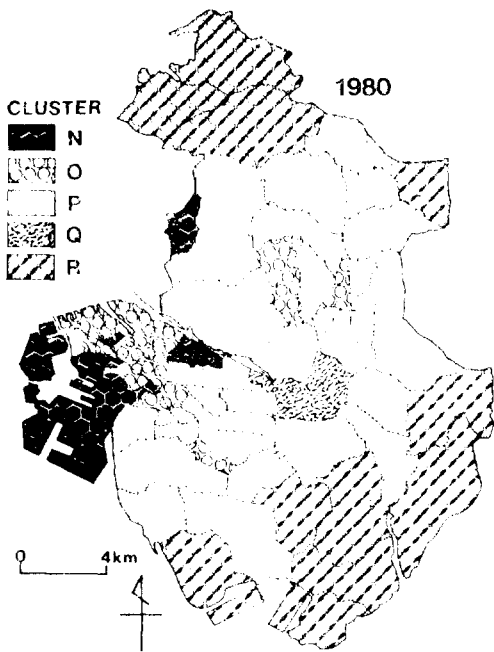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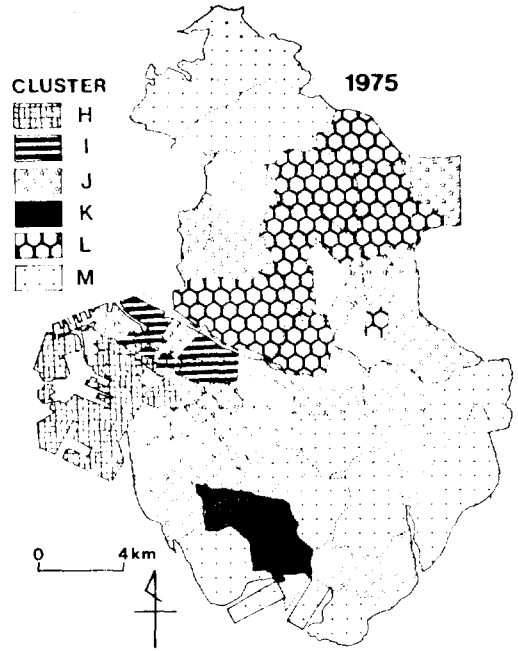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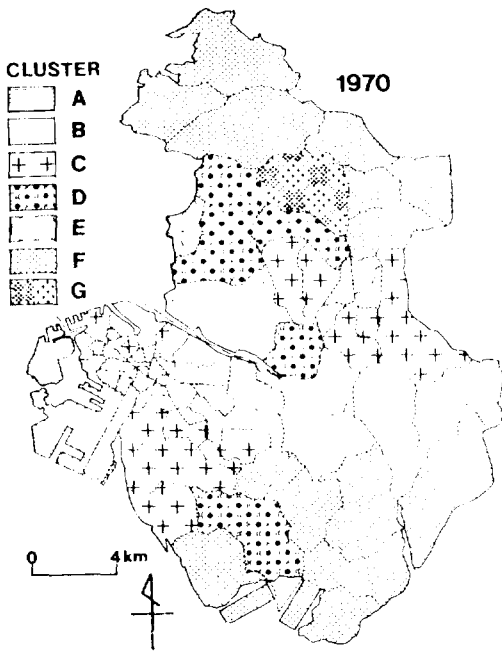


그림 4. CCC와 NCL의 關係(1970~1980)



- A. 社會·經濟的 上層人口地域.
- B. 男性少年 人口을 가진 有配偶의 中世帶家가 居住하는 單獨住宅地域.
- C. 賃金·俸給勤勞人口로 構成된 中世帶家口가 居住하는 單獨住宅地域.
- D. 5年前 居住地가 仁川市가 아닌 自營主·無給家族

- 從事人口로 構成된 中世帶家口가 居住하는 最近에 建築된 芝罘트 聯立住宅地域.
- E. 5年前 居住地가 仁川市인 賃金·俸給勤勞·有配偶 人口가 居住하는 鴻邑들 住宅地域.
 - F. 自營主·無給家族從事人口가 居住하는 社會經濟的 下層人口地域.
 - G. 5年前 居住地가 仁川市가 아닌 未婚靑少年層의 賃金·俸給勤勞人口로 構成된 中世帶家口의 나무材料 單獨住宅地域.
 - H. 靑年年齡層의 未婚人口로 構成된 社會經濟的 上層 人口地域.
 - I. 幼少年層의 子女를 가진 有配偶人口가 居住하는 傳貰·月貰의 大世帶家口地域.
 - J. 最近에 建築된 新興住宅地域.
 - K. 幼少年層의 子女를 가진 有配偶人口가 居住하는 傳貰·月貰의 大世帶家口地域.
 - L. 未婚·靑年年齒層의 賃金·俸給勤勞人口地域.
 - M. 自營主·雇傭主·無給家族從事人口와 靑年年齡層의 未婚人口가 居住하는 自家居住家口地域.
 - N. 社會經濟的 上層家事人口가 居住하는 芝罘트住宅 과 5年前 居住地가 仁川市인 人口가 居住하는 林產燃料·나무住宅地域.
 - O. 5年前 居住地가 仁川市인 社會經濟的 上層人口가 居住하는 退落한 舊高級住居 및 舊名門學校地域.
 - P. 最近 移住해온 人口가 居住하는 中·上級의 新興 住宅地域.
 - Q. 煉炭이나 林產燃料을 使用하는 自家·傳貰·月貰 居住家口가 主를 이루는 賃金·俸給勤勞人口地域.
 - R. 自營主 및 靑年年齡層의 無給家族從事人口로 構成된 小世帶 또는 大世帶의 林產燃料使用家口地域.

그림 5. 等質居住地域의 空間패턴(1970~1980)

4) 等質居住地域의 形成에 관한 綜合考案

等質居住地域의 主要特性의 構成特性과 變遷過程의 特性에 대해서 空間패턴의 가장 廣範圍한 部分에서 나타나는 第1特性和 그 다음으로 많은 部分에서 나타나는 第2特性을 中心으로 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第1特性의 構成內譯을 年度別로 살펴보면, 「1970年: 自營主·雇傭主·無給家族從事人口가 居住하는 社會·經濟의 下層人口地域→1975年: 最近에 建築된 新興住宅→1980年: 最近 移住해 온 人口가 居住하는 中·上級の 新興住宅」으로 나타나고, 第2特性의 경우 「1970年: 男性 少年人口를 가진 有配偶의 中世帶家口가 居住하는 單獨住宅→1975年: 自營主·雇傭主·無給家族從事人口와 靑少年年齡層의 未婚人口가 主를 이루는 自家居住家口→1980年: 自營主 및 靑年年齡層의 無給家族從事人口로 構成된 小世帶 또는 大世帶의 林産燃料使用家口」로 나타난다.

여기서 第1特性和 第2特性의 構成內譯과 그 變遷過程을 綜合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第1特性은 居住人口의 外的構成要素인 住宅과 관련된 것이고, 同時에 居住人口의 動的狀態를 나타내는 居住地 移動에 따른 새로운 居住地域의 出現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1960年代까지 維持되어 오던 既存의 居住地域構造가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廣範圍한 地域에 걸쳐서 急激히 變化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1970년에 들어서면서 前半에는 都市外部轉入人口에 의한 中·上級の 새로운 居住地의 造成·擴大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70年代 後半의 都市外部轉入人口에 의한 새로운 居住地의 造成·擴大는 서울에서 逆流된 人口와 地方에서 轉入된 人口들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事實은 都市居住地域의 分化和 관련하여 많은 것을 示唆한다.

또한, 第2特性은 居住人口와 家口의 內的構成要素, 즉 經濟 및 家族의 地位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1970年の 경우엔 居住人口의 從事上地位단인 主要한 構成特性으로 나타나므로서 單純構造를 이루고 있으나, 1970年과 1980年の 경우는 居住人口의 從事上의 地位는 물론 年齡構成, 婚姻狀態, 世帶規模 등이 主要한 構成特性

으로 나타나므로서, 이러한 特性들이 等質居住地域이라는 새로운 居住空間의 形成에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仁川市의 경우, 特性의 構成數는 1970年이 7個, 1975年이 6個, 1980年이 5個로서 漸次 減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同一한 特性을 나타내는 等質居住地域들이 漸次로 擴大되고 있는 것을 意味한다. 이로서 仁川市의 경우 居住地域의 等質化가 계속적으로 進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要約 및 結論

本 研究은 우리나라 都市의 居住地域構造를 居住地域의 分化和 等質居住地域의 形成이라는 두가지 側面에서 理解하고, 同時에 그의 過程의 認識을 위하여 1970年, 1975年 및 1980年の 仁川市를 研究對象地域으로 選定하여 行하였다.

仁川市의 居住地域分化的 要因으로는 1970年에는 社會·經濟의 地位, 家族의 地位, 都市內 製造業·서비스業 從事人口, 居住移動, 住宅의 種類 등이, 1975년에는 社會·經濟的 地位, 都市內 製造業·서비스業 從事人口, 家口의 占有狀態, 家族의 地位, 住宅의 年輪, 世帶規模 등이 抽出되었다. 1980년에는 社會·經濟的 地位, 都市內 製造業·서비스業 從事人口, 居住移動, 地域의 年輪, 世帶規模, 家口의 占有狀態 등이 各各 抽出되었다.

위와 같은 各 年度의 居住地域分化的 要因들을 全體的으로 要因의 變量과 出現回數 등을 基準으로 볼 때는 社會·經濟的 地位, 都市內 製造業·서비스業 從事人口, 家族의 地位, 居住移動, 世帶規模, 家口의 占有形態 등 6個의 要因이 居住地域分化的에 主導的 役割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居住地域分化的의 主要要因들의 空間패턴은 中心性(centrality), 交通施設의 立地와 改善, 行政機能의 移轉, 地域의 年輪, 工業團地의 立地, 大單位居住團地의 造成, 隣接都市의 急成長, 都市規模의 絶對的 成長 등의 地域的 成長에 따라서 單獨의이나 複合的 影響을 받으면서 形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仁川市の 等質居住地域은 1970년에는 社會・經濟的 上層人口地域 등 7個, 1975년에는 青年 年齡層의 未婚人口로 構成된 社會・經濟的 上層 人口地域 등 6개로 各各 抽出되었다. 1980년에는 社會・經濟的 上層家事人口가 居住하는 시엔 트住宅과 5年前 居住地가 仁川市인 人口가 居住 하는 林産燃料・나무材料住宅地域 등 5個로 抽出되어 等質居住地域은 主要한 居住地域分化要因들이 複合的으로 作用하여 形成된 것으로 나타났다.

等質居住地域의 空間패턴을 綜合的으로 살펴 보면, 第1 特性은 主要 居住人口의 外的 構成要素인 住宅과 關聯된 것이고, 同時에 居住人口의

動的狀態를 나타내는 居住地移動에 따른 새로운 居住地域의 出現과 有關하고, 第2 特性은 主要 居住人口와 家口의 內的 構成要素인 社會・經濟的 地位 및 家族의 地位 등과 有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等質居住地域의 空間패턴의 構成特性的 數가 年度別로 減少하고 있어서 等質居住地域의 通廢 合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本 研究를 통해서 1960年代 後半과 1970 年代 全期間의 仁川市의 居住地域構造가 드러났고, 이로서 우리나라 都市居住地域構造의 一端 이 把握됐다고 본다.

The Residential Structure of Incheon City: 1970~1980

Won-Hoe Choi*

The residential structures of Incheon City in 1970, 1975 and 1980 were investigated by means of factorial ecological and cluster analysis methods. The 54 input variables were procured from the data of the sample enumeration and the reports of the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for 3 years. These input variables were concerned with population, household, housing, and so on. The census-dong division is used as an analytical unit of this study.

The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The six common factors for each year are extracted by the factor analysis. Among the 18 common factors for 3 census periods, the 8 prominent factors such as the socio-economic status, the urban manufacturing and service-trade workers, the family status, the residential mobility, the household size, the type of occupation of households, the age of housing, and the history of area are found. Especially, the socio-economic status is found the first factor for each census period.

The spatial pattern of the common factors are found under influence of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centrality, the improvement of the transportation system, the movement of the administration authorities, the location of the industrial complex, the formation of the large residential complex, the rapid growth of neighboring cities, and so on.

The clusters which represent the homogeneous residential area extracted by the administration of the cluster analysis to the cluster analysis to the common factors. The number of the clusters are seven, six and five, in 1970, 1975, and 1980 respectively, representing that the homogeneous clustering process of the residential areas is in progress. The homogeneous residential areas are constructed as a result of different combination of principal common factors. Especially, the homogeneous residential area of socio-economic upper class remains all the same in Jung-gu, Incheon City for 3 years.

* Associate Assistant, Department of Geography, Kongju National Teachers University